

금요 양성 2026년 6월 5일

영속 양성의 중요성

영속 양성은 프란치스칸 성소를 활발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초기 양성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회헌은 양성은 지속적인 회개와 교회나 사회에서 우리의 사명 완수를 돕기위한 것으로 일생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회헌 44조에 따르면, 영속 양성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의 빛안에서 세상을 보고 성찰하도록,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와 다른 프란치스칸 작가들의 글을 통하여 프란치스칸 성소를 심화하도록 도와준다 - 우리는 프란치스칸 지성적·영성적 전통(Franciscan Intellectual Spiritual Tradition)을 통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무엇이 영속 양성에 포함되어 있는가

영속 양성은 프란치스칸 삶의 4가지 중요한 영역을 다룬다.

- **프란치스칸 주제들:** 회칙, 회헌, 프란시스와 글라라의 글, 그리고 프란치스칸 작가들 ([Franciscan Intellectual Tradition website](#))-로그인 필요
- **현시대의 주제들:** 오늘날 프란치스칸으로 사는 방식, *찬미 받으소서*와 *복음의 기쁨*과 같은 교회 문헌, 교황 권고 『*딜렉시 테*』: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 ([Apostolic Exhortation Dilexi Te Love for the Poor](#)), 성 프란시스 서거 800주년 기념 개막에 대한 서한 ([Te Love for the Poor; Letter on the opening of the 800th Anniversary of the Death of St. Francis](#))
- **기도:** 프란치스칸 기도, 성서로 기도하기, 성체 조배로 고양되는 영적 생활 심화하기
- **교회에 대한 가르침:** 교회의 사명과 가르침, 교회 삶을 이해하기

누가 우리를 양성하는가

양성은 결코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 양성자는 **성령, 회원 자신, 단위형제회, 평의회, 양성지도자와 양성팀, 영적 보조자, (지원기와 양성기에 있는 회원들의) 후원자** 그리고 **상급형제회**이다. 각자가 새 회원이나 서약한 회원들의 성소를 양육하는데 역할을 한다.

어떤 양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양성 - 초기와 영속 둘다- 은 우리가 인간적인 또 그리스도인적인 성숙의 함양을 도우며, 하느님과의 일치를 심화하고, 소속감을 강화하며, 성령에 의존하도록 도운다. 또한 형제회 생활에 몰두하게 해 주며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도와 준다.

양성의 열매

- **성장(우리는 양육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성소를 가꾸고 성장시킨다. 서약한 회원들조차도 새로와진 식별과 성찰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
- **동화 (우리는 흡수한다):** 공동체 생활, 나눔, 모범을 통하여, 우리는 프란치스칸 카리스마안에서 서로를 “감싼다.”
- **통합(우리는 들어간다.내면화한다):** 프란치스칸의 가치들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자연스럽게, 본능적이며, 실제로 살아내는 삶이 된다.
- **영속적인 회개 (우리는 성찰한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할 필요를 인식하고, 서로를 후원하며, 비틀거릴 때 스스로를 다시 다짐한다.
- **변화 (우리는 변화되었다):** 양성의 최종 목적은 더욱 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하느님과의 우리 관계는 우리 프란치스칸 삶의 기초가 되며 서로와 연결되는 방식을 형성한다.

(미국에서의 초기 양성에 대한 지침서를 참조하십시오.)

형제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의 질문

1. 개인적으로 어디에서 영속 양성을 찾습니까?
2. 위에 제시된 4개의 양성 영역 (프란치스칸, 현시대, 기도, 교회의 가르침)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끌리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3. 형제회 생활이 프란치스칸 카리스마를 배우고 살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4. 재속회에 들어온 이후로 자신에게 어떤 변화의 징조를 보았습니까?
5. 자기 성소의 지금 단계에서 어디에서 더 깊은 회개로 불림을 받았다고 느낍니까?
6. 새로운 회원이나 오래전에 서약한 회원의 영속 양속을 강화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